

번호 05-4

제 목	국문	DRG 지불제도 도입에 따른 청구 진단명 및 시술명의 변화				
	영문	Changes in the diagnoses and procedures coding in claims data according to DRG-based prospective payment				
저 자 및 소 속	국문	강길원, 서창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영문	Gilwon Kang, Chang-Jin Suh Korean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분 야	보건관리 (○) 역 학 () 환 경 ()	발 표 자	일반회원 (○) 전 공 의 ()	발표 형식	구 연 (○) 포스터 ()	
진행 상황	연구완료(○), 연구중()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p>1. 연구 목적</p> <p>의료보험 청구지급자료에 수록된 진단명과 시술명이 정확하다면 상병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높다. 그러나 한 연구에 의하면 의무기록의 진단명과 진료비 명세서의 진단명이 일치하는 경우가 13%에 불과하고 의무기록에 없는 진단명이 상당수 추가되는 등 자료 자체의 신뢰성 문제로 사용에 제한이 따르고 있다.</p> <p>이러한 문제는 의료기관의 실수에 기인한다기 보다는 현재의 진료비지불제도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이다.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진료비 삭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청구 내역에 따라 진단명이나 시술명을 조정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조정과정에서 부정확한 진단명이나 시술명이 기재되는 경우가 많았다.</p> <p>그러나 DRG 지불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진단명과 시술명에 따라 DRG번호가 결정되지만 개별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진단명이나 시술명을 조정하는 과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청구 진단명과 시술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RG 지불제도 도입이 청구 진단명과 시술명에 미친 영향을 평가해보고자 하였다.</p> <p>2. 연구 방법</p> <p>청구 진단명과 시술명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1998년 DRG 2차 연도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을 대상으로 참여전 3개월간의 청구지급자료와 참여후 6개월간의 청구지급자료를 분석하였다. 참여전 3개월 자료는 2차 연도 시범사업에 신규로 참여한 의료기관의 행위별 청구자료이다. 분석의 단위는 청구시 기재하는 진단명과 시술명의 개수로 하였다. 2차 연도 시범사업에 신규로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참여전 3개월 자료(97년 11월-98년 1월)와 참여후 전반 3개월(2-4월), 후반 3개월 자료(5-7월)를 비교하였다.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경우 6개월간의 자료를 전반 3개월(2-4월)과 후반 3개월(5-7월)로 나누어 신규 참여 병원과 비교하였다.</p>						

3. 연구 결과

청구시 기재하는 진단명의 개수는 참여 전에는 진료건당 평균 3.33개였으나 참여 후 전반 3개월에는 2.46개, 후반 3개월에는 2.37개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반면 1차 연도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던 의료기관은 전반 3개월에 2.10개, 후반 3개월에 2.23개로 2차 연도 신규 참여 의료기관에 비해 기재하는 진단명이 적었다.

청구시 기재하는 시술명의 개수도 참여 전에는 진료건당 평균 4.07개였으나 참여 후 전반 3개월에는 2.46개, 후반 3개월에는 2.27개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1차 연도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던 의료기관은 전반 3개월에 2.32개, 후반 3개월에 2.34개로 2차 연도 신규 참여 의료기관의 참여 후 값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4. 고찰

DRG 지불제도 도입에 따라 청구 진단명과 시술명의 개수가 유의하게 감소한 것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먼저 부정확한 진단명이나 시술명의 기재가 줄어들어 진단명과 시술명의 정확성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진단명과 시술명의 조정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줄어들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지급에 필요하지 않은 진단명이나 시술명이 누락되어 전체적인 정확성이 저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실제 진단명과 시술명을 청구 진단명 및 시술명과 비교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